



양돈협, 「2005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 전업 양돈농가 PSY 평균 19.7두로 2003년 조사에 비해 1.65두 감소
- 응답자 65.6%, 양돈업 가장 큰 문제는 '분뇨처리' 답해
- 응답자 55.6% 이유 후 자돈 사육기간 폐사 경험해
- 양돈업 저해요인 분뇨처리 및 환경규제, 수입개방, 가축질병순

양돈협회는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양돈 전업농가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양돈수급 안정 대책 등 정책수립, 추진 등에 활용코자 지난 2005년 11월 28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500두이상의 전국 5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조사한 「2005년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돈농가의 경영실태 파악을 통해 양돈수급 안정대책 등 양돈정책 수립 및 추진시 기초 자료로 활용키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의 조사시점은 2005년 11월 기준이며, 조사대상 농가의 2004년도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조사분석은 서울대학교 농업정보체계연구실에서 담당했다.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결과 책자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연구소, 전국시·군, 농협중앙회, 지역·양돈조합, 양돈협회 전국지부, 언론사, 전국 축산관련 대학에 자료로 배부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양돈업 종

사기간 등 일반사항, ▲사육형태, 총 사육두수, 돈사면적, 돈사구조 등 농장 일반사항, ▲모돈 두당 평균 산자 수, 평균 이유두수, 모돈 회전율, 모돈 두당 연간 이유두수(PSY), 2년간 번식성적 하락 이유, 자돈 폐사, 육성돈 폐사, 인공수정률 등 생산성 현황, ▲총 수입, 총 지출, 부채, 정책자금 지원 등 양돈경영 및 수익성 현황, ▲양돈장 질병 피해, 폐사 구간, 방역 및 가축질병 대책 등 질병 및 방역관련 사항, ▲향후 사육규모, 2년간 사육두수 증감, 사육두수 감소 이유, 양돈업 애로사항, 축산업 등록제, 농장 HACCP 참여 관련 정부 건의사항, 협회 건의사항 등 의견조사, ▲분뇨처리 형태, 톤당 분뇨처리비, 자원화 방식, 분뇨처리 방식 선호도, 분뇨처리 관련 정부 건의사항 등 친환경 양돈업 관련 사항, ▲양돈자조금 사업 등 자조금 관련사항 ▲후계자 여부, 출하처, 등급제 판매, 지급율, 출하시 정산 기준, 가입 단체, 건물 손해보험 가입, 가축공제(질병) 가입 등 기타 일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돈협회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양돈농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본인의 생산성적을 조사 자료와 비교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더욱 노력하고 보완해 농장 경영수준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내용 요약

1. 경영주 일반사항

- **[표본농가 분포]** 2005년 가축통계(농림부)를 기준으로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9개 도, 110개 시군에 걸쳐 사육두수 500두 이상의 전업양돈농가 500호를 선정.
- **[연령]**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9.6세였고, 2,30대의 전업양돈농가는 11.1%만을 차지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노령층의 구성비율이 높아짐. 젊은 후계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1,000~3,000두 규모의 농가의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성별]** 남성의 비율이 98.6%로 여성에 비해 절대적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대외활동 및 대외적 대표성이 낮다고 분석됨.
-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80.2%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 타 농업 분야에 비해 고학력자의 종사자가 높음. 예년에 비해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사육규모가 클수록 높은 학력의 농장주가 많음.
- **[양돈업 종사기간]** 조사대상 농가들의 평균 종사기간은 17.2년이었고 87.7%의 농가들이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음. 양돈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길수록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평균 종사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이나 10년 이내 종사자 비율이 감소되고 있어 신입 양돈업 진입이 어렵거나 신규 참여 의지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2. 농장 일반사항

- **[사육형태]** 조사농가의 89.1%가 번식부터 비육까지 일괄경영하고 있으며 번식부터 자돈까지, 육성에서 비육까지의 순으로 비율이 높음.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경영의 형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일괄경영의 형태를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임.
- **[총 사육두수]** 표본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1,995두이고 이 중 육성비육돈이 5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1,000~2,000두 규모의 양돈농가나 조사농가의 45.4%를 차지. 1,00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진 농가들이 증가추세로 전업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함.
- **[총 돈사면적]** 표본농가 전체 평균 돈사면적은 950.1평이며 400~1,200평의 돈사를 보유한 농가가 63.6%를 차지함. 1,000두 미만의 사육규모를 가진 농가들의 96.7%가 평균 800평 미만을 보유하는 반

면, 5,00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진 농가들은 평균 3,459평을 보유함.

- 400평 이하는 줄어드는 반면 800평 이상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모든 규모에 있어서 전년대비 증가추세를 보임.
- **[최대 사육능력]** 응답농가의 평균 추가 사육가능 두수는 515.1이며, 현 사육두수의 25.8% 추가 사육이 가능함.
- **[인력구성]** 부부경영이 32.2%로 가장 높고 가족경영이 10.7%를 차지하여 전체 응답자의 42.9%가 자가 노동력에 의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가족중심의 자가노동력을 이용하는 양돈장 경영이 전업화되어 가면서 고용 중심의 인력구조로 변하는 추세도 나타남.
- **[농장성적 기록]** 농장성적을 직접 관리하거나 파악하는 농가가 89.9%를 차지하지만 전산으로 성적을 관리하는 경우는 26%에 불과함. 사육규모가 증가할수록 전산관리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은 노트기록을 하거나 성적을 기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 **[돈사구조]** 혼합형을 포함한 슬러리 돈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수가 절반 이상인 55.5%를 차지함. 사육규모가 증가할수록 스크레파, 톱밥, 평사 등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슬러리나 혼합 돈사의 비율이 증가함. 이는 양돈농가들이 규모를 늘려 돈사를 추가 건축할 때 분뇨처리 형태가 불안정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임. 제주지역은 슬러리 구조 돈사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고 충남과 경기도는 스크레파 비율이 슬러리 돈사 구조보다 높음.

3. 생산성 현황

- **[모든 두당 평균 산자 수]** 모든 두당 평균 산자 두수는 10.47두임. 2,000~3,000두 규모가 가장 산자수가 높고 이보다 작거나 큰 규모일 경우는 산자수가 떨어지는 형태를 가졌으며, 충북이 10.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평균 이유두수]** 평균 모든 두당 이유두수는 9.38을 나타냄. 사육규모가 늘어날수록 평균 모든 두당 이유두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기업화 양돈장의 경우 다소 성적이 떨어져 기업규모 양돈농가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한편, 양돈농가들이 점차 전업화, 정보의 공유 및 신기술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평균 이유두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돈농가의 생산 성적이 나아지고 있음.
- **[모든 회전율]** 평균 모든 회전율은 2.23임. 사육규모가 늘어날수록 모든 회전율이 증가하고 특히 2,000이상의 규모에서 회전율이 크게 증가하지만 성적 상승의 한계에 접어들어 규모가 더 커져도 큰 차이가 없음. 충북, 강원지역이 2.26으로 높게 나타났고 제주, 전남지역은 다소 낮게 나타남.
- **[모든 두당 연간 이유두수(PSY)]** 평균 모든 두당 연간 이유두수는 19.7두임. 사육규모가 늘어날수록 성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5,000두 이상 기업규모에서 다소 하락함. 충북, 경북이 높게 나타났고 충남, 전북이 낮게 나타남.
- **[2년간 번식성적 하락 이유]** 이유육성을 감소, 모돈회전율 감소, 산자수 감소의 순으로 하락 이유를 지적됨. 이는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이유 기간 내 자돈 폐사 피해가 심각함을 나타냄. 이러한 하락이유

의 우선순위는 지역별로는 서로 상이하였으나, 사육규모가 증가할수록 산자 수 감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자돈 폐사]** 복당 편균 1.3마리의 자돈이 포유개시부터 이유 전까지 폐사함. 사육시설이 열악한 1,000두 미만의 소규모에서 높은 폐사율을 보이고 3,000~5,000두 규모에서 가장 낮은 폐사율을 보임.
- **[육성돈 폐사]** 월 평균 육성돈 폐사 두수는 30.58두를 보였으며, 생산성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충청북지역이 육성돈 폐사율이 가장 낮음.
- **[연간 출하두수]** 일관경영 농장을 중심으로 한 평균 연간 출하두수는 3,145두이며, 추정 MSY(모든 두당 연간 출하두수)는 평균 15.8두를 보임.
- **[모든 선발 방식]** 모든 선발은 외부 후보돈 구입 비율이 76.0%이고, 자가 F1생산은 17.8%를 차지함. 규모가 클수록 외부 후보돈 구입 및 비육돈 자체 선발 비율은 낮아지고 자가 F1생산비율은 높아짐.
- **[인공수정률]** 표본농가 평균 교배두수의 84.4%가 인공수정을 통해 교배되나 교배두수의 20%미만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농장도 6.3%나 됨. 사육두수가 증가할수록 인공수정 비율도 증가하고, 80% 이상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 농장의 비율이 2001년 대비 28.9%의 증가를 보임.
- **[인공수정 방법]** 조사대상 농가의 66.5%가 외부 A.I센터를 이용하여 인공수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도는 78.7%, 충북지역은 93.8%가 외부 A.I센터를 이용하는 반면 전남지역은 54.0%가 자가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별로 인공수정 방법에 대한 차이가 많음. 그러나, 외부 A.I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5년에는 특히 인공수정 미실시 농가가 2.6%로 크게 감소함.

4. 수익성 현황

- **[연 손익]** 조사양돈농가의 연간 총 손익은 평균 2억 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1,000~2,000두 규모의 농가는 평균 1억8천8백만원의 연손익을 가지며 5,00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지는 농가는 평균 7억7백만원의 연손익을 가짐.
- **[총 수입]** 1,000~2,000두 규모의 농가는 평균 4억7천1백만원의 총 수입을 가지며 5,00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지는 농가는 평균 27억7천7백만원을 가짐. 양돈가격의 호조 등으로 인해, 이전의 조사에 비해 월등히 상승함.
- **[총 지출]** 1,000~2,000두 규모의 농가는 평균 3억8천2백만원의 총 지출을 가지며 5,00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지는 농가는 평균 31억7천6백만원을 가짐.
- **[금융 부채]** 평균 금융 부채액은 3억1천6백만원으로 1,000~2,000두 규모의 농가는 평균 2억1천만원의 금융부채를 가지며 5,00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지는 농가는 평균 13억2천만원으로 나타났으나, 2003년 대비 9.45%(3천3백만원) 감소함.
- **[외상 부채]** 평균 외상 부채액은 7천7백만원으로 1,000~2,000두 규모의 농가는 평균 4천8백만원의 외상부채를 가지며 5,00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지는 농가는 평균 2억7천9백만원으로 나타났으나, 2003년 대비 12.0%(1천1백만원) 감소함.

- **[정책자금 지원]** 지난 2년간 표본농가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정책자금은 평균 6천8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전혀 지원받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41.9%를 차지함.
- **[담보 설정 방법]** 농신보 및 부동산 결합 형태를 가장 많이 이용함. 규모가 증가할수록 농신보 대출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부동산과 농신보 대출의 결합한 비율이 증가함.
- **[출하체중]** 조사 농가의 평균 출하체중은 111kg이며 모든 농가가 120kg이전에 출하함. 3,000~5,000두 규모가 평균 111.4kg으로 가장 높으며 1,000두 미만이 110.9kg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체중으로 출하함.
- **[생산비]** 전체의 42.2%가 18~20만원을 생산비로 사용하며 이는 2005년 정부 발표 생산비 19만6백원과 거의 동일함.
- **[사료비 정산방법]** 사료비는 33.1%가 선금으로 정산되며 현금, 1개월내 상환의 비중을 포함하면, 79.3%가 사료비를 1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음. 2,000~3,000두 규모가 선금, 현금 결제의 비중이 가장 크며 5,000두 이상 기업규모가 2개월 이상 연체비율이 높음. 이전조사 대비 선금 및 현금거래가 증가하였고 이는 사료 값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돈농가의 노력과 돼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가 소득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5. 기타 일반사항

- **[후계자 여부]** 환경문제 등 각종규제로 인해 양돈산업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여 76.4%가 농장의 후계자 문제를 안고 있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평균 18~22%만이 후계자가 있으나 대규모 농가들은 40% 이상 후계자가 있음.
- **[등급제 판매]** 등급판정에 따라 등급별 가격을 정산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의 42.7%를 차지함.
- **[지급율]** 5,000두이사의 규모는 평균 70.1%의 지급율을 적용받는 등 규모가 클수록 높은 지급율을 적용받고 있음. 제주지역이 평균 72%로 가장 높으며 충남과 전남이 가장 낮은 지급율을 적용받고 있음.
- **[출하시 정산 기준]** 서울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의 50.5%, 이 가격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전체의 63.8%가 서울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는 지방가격에, 기업규모는 서울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 **[가입 단체]** 응답농가 중 53.7%가 양돈조합에, 29.7%가 지역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건물 손해보험 가입]** 건물 손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체의 74.7%를 차지함. 지난 5년간 건물 손해보험 가입율은 34.6%에서 74.4%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가축공제(질병) 가입]** 가축공제에 가입한 표본농가는 전체의 46.1%로 건물 손해보험에 비해 낮은 가입율을 가지나, 규모가 커질수록 가입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2003년조사에 비해 가입율이 18.7%p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양돈장 소모성 질병의 확산이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임.
- **[신기술 및 정보 습득]**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은 사료회사 또는 동물약품회사 직원, 양돈 전문 월간지를 통해 신기술 및 정보를 얻고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인터넷 등 최근 정보습득방법에 대한

활용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컴퓨터 활용]** 컴퓨터를 활용하는 농가는 47.3%로 사육규모를 감안하면, 컴퓨터의 농장 경영 활용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임. 한편, 규모가 커질수록 컴퓨터 활용비율이 현저히 높아짐.
- **[주요 컴퓨터·인터넷 활용]** 주로 축산관련 뉴스, 시세, 농장 기록관리 등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신기술 및 전문기술에 관한 활용도는 아직 낮음.

6. 질병 및 방역관련 사항

- **[양돈장 질병 피해]** 40.7%가 PMWS(이유후전신성소모성증후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13.1%의 농가들이 복합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질병명을 몰라 양돈장 소모성 질병 발생의 문제점이 심각함. 1,000~2,000두의 규모를 가진 농가들이 PMWS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5,000두 이상의 기업규모 농가에서는 타규모에 비해 PED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폐사 구간]** 사고 및 폐사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시기는 이유 후 자돈 사육기간 55.6%, 육성기간 25.2%, 자돈 포유기간 16.9%순으로 응답함.
- **[방역 및 가축질병 대책]** 전체의 27.9%가 농장주의 방역의식 강화를 지적하였고 떨어뜨리 유통근절과 청정한 종돈공급을 22.0%가 응답하여 농가 스스로의 방역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

7. 자조금 관련사항

- **[자주 접하는 자조금 사업]** 양돈자조금 사업 중 가장 많이 접하는 사업은 TV, 라디오광고 등 직접 소비홍보 광고 42.9%, 정기양돈자조금지 22.3%, 간접 방송광고와 지역별 시식회가 17.7%, 11.9%의 순으로 나타남.
- **[양돈자조금 중점 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직접 소비홍보 광고 35.8%, 새로운 요리법 개발 및 우수성 연구 19.6%,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15.6%의 순으로 응답함.
- **[양돈자조금 납부 동참 분야]** 양돈자조금을 함께 납부해야할 분야로 27.7%가 돼지고기 수입업자를, 24.4%가 사료업자를 선택함.

8. 의견조사

- **[향후 사육규모]** 조사농가들은 향후 1년 후 사육두수를 현재대비 평균 9.9% 증가할 것이라 응답함. 사육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들이 크게 사육규모를 늘릴 계획을 밝혀 양돈업의 전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파악됨. 경남이 가장 높은 15.5%의 사육두수를 증가계획을 밝혔으나, 제주지역은 평균 0.5%의 감소계획을 밝혀 지역간 차이를 보임.
- **[2년간 사육두수 증감]** 2년간의 사육두수 변화에 대해 43.5%가 변화가 없었으나, 생산성이나 수익성

이 높은 2000두 이상의 농가들의 사육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사육두수 감소 이유]** 사육두수 감소이유는 소모성 질병 등 방역위생문제 49.7%, 생산성 저하로 인한 감소 14.6%, 분노 및 환경문제 또는 민원으로 인한 감소가 18.4%로 나타남.
- **[양돈업 애로사항]**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65.6%가 분노 및 환경문제를 들어 향후 각종 양돈정책 수립 시 분노 및 환경문제 해결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모습은 다년간의 조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임. 한편, 규모가 커질수록 가축질병 및 방역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소규모의 농가는 경영수지 부실, 경영관리능력 취약을, 기업형 농가는 자금조달, 가축질병 방역, 인력부족의 문제를 타규모에 비해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향후 양돈산업 저해 요인]** 양돈산업의 저해요인으로 분노처리 및 환경규제 42.7%, 수입개방 21.1%, 가축질병 및 방역문제 20.7%로 응답함.
- **[축산업 등록 후 우려사항 및 정부노력사항]** 조사농가의 66.2%가 향후 사육두수제한 또는 돈사 신축, 증축 제한을 우려하였고, 정부에 대해 응답자의 36.6%가 안정된 양돈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요구함.
- **[농장 HACCP 참여 의사 및 필요사항]** 응답농가의 89.7%가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으며, 제도추진시 필요사항으로 39.9%가 현실에 맞는 인증기준 설정이라 응답해 각종 시설비 지원, 혜택부여보다 인증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브랜드 사업 참여]** 응답자의 84.4%가 축산물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음.
- **[정부 및 협회 건의사항]** 정부에 대해, 40.4%가 분노처리문제의 해소를 건의하였고, 협회에 대해서는 29.5%가 양돈정책 대안기구로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함.

9. 친환경 양돈업 관련 사항

- **[분뇨처리 형태]** 분뇨처리 형태로 퇴비화 31.3%, 해양배출 30.7%, 액비화 17.0%의 순으로 처리비율이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강원, 충남, 충북은 퇴비화의 비율이, 기타 지역은 해양배출의 비율이 다른 처리방식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톤당 분뇨처리비]** 톤당 분뇨처리비는 평균 14,318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퇴비화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지역이 평균 11,045로 가장 낮았고, 규모에 따라서는 5000두이상의 농가가 13,461원으로 가장 낮음.
- **[자원화 방식]** 분뇨를 퇴비화 또는 액비화로 자원화 할 경우 39.9%가 타인 소유 토지에 사용, 27.0%가 비료유통업체에 위탁, 18.9%가 자기 소유 토지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뇨처리 방식 선호도]** 전반적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화방류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은 액비저장조가, 경남은 교반식발효퇴비 시설이, 전남은 퇴비사가, 전북은 퇴비단여과시설(SCB공법)이, 충남은 정화방류시설에 대한 농가 선호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지역별 선호도 차이가 발생.
- **[사용하지 않는 분뇨처리 시설]** 이미 설치된 분뇨처리 시설 중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는 교반식 발효퇴

비시설이 19.0%로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비슷한 비율을 보인걸로 보아 양돈장 분뇨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분뇨처리 시설 미사용 이유]** 분뇨처리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27.3%가 처리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시설 설치 이후 부자재 구입비 상승, 2차 처리의 어려움 발생 등 주위의 환경 및 여건변화로 인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남.
- **[분뇨처리 관련 정부 건의사항]** 분뇨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사육규모에 상관없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확대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악취방지법 피해]** 지난 2005년 2월에 시행된 악취방지법과 관련하여 응답농가들의 84.5%가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4.9%에 불과. 응답농가의 35.2%는 심각한 피해나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악취방지법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돈 밀집지역인 경기, 충남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두드러짐.
- **[환경 민원발생]** 지난 2년간 평균 1.1건의 악취나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냄. 규모별로는 1,000두 미만 규모에서는 2년간 평균 0.54건이 발생한 데 비해 3,000~5,000두 미만 규모에서는 평균 1.9회 민원이 발생하여 약 4배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0두 이상 기업규모 농가에서는 민원 발생이 평균치와 비슷한 1.0회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해양배출 중단 시 피해]** 해양배출이 중단되어도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농가는 전체의 13.2%에 불과하며, 표본농가 중 대부분인 86.8%가 해양배출 중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지역별로는 경남, 경북지역에서 피해가 심각하고 다른 처리방법이 없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됨.
- **[톤당 해양배출 비용]** 평균 톤당 해양배출 비용은 1만5천8백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지역의 처리 비용이 톤당 1만9천5백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친환경 직불제 보완점]** 친환경 직불제 시행에 있어 38.5%가 참여기준을 완화를, 다음순으로 직불금액 조정, 사업홍보 강화, 서류절차 간소화 등을 응답함.
- **[분뇨처리 활성화를 위한 경종농가 지원 강화]** 분뇨처리 활성화를 위한 경종농가의 지원강화에 전체 응답농가의 20.9%가 바람직하다. 52.8%가 경종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지원 또한 병행해야 한다. 26.4%가 경종농가 보다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돈**

